



임인년 새해,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 기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원자력계 종사자분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도 보고 덕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인사를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 내년 새해에는 직접 만나 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원자력은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집트에 건설 예정인 원전의 2차 계통 건설 사업에 대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바라카 원전에 이은 대규모 수출 계약이라는 쾌거 달성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기술자립과 발전을

위해 산·학·연 종사자분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낸 노력의 산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원전 수출과 소형원전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27일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신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6차 종합계획에서는 안전, 수출, 융합, 소통 등 4대

분야 12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전주기 기술개발과 융복합·혁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3,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과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원자력이 한 단계 더욱 성숙하고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F**